



## 폐렴

박성학

대한결핵협회 학술이사 ·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 개요

호흡기 감염은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 등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폐질환 즉 만성 기관지염을 포함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 천식 등이 있는 환자가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결핵을 심하게 앓은 후유증으로 폐의 손상이 심할 경우 호흡기 감염으로 악화되는 환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호흡기 질환 중, 환자관리가 개선되고 우수한 항생제 및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폐렴은 여전히 흔한 호흡기 질환이며, 특히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폐렴은 오래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입니다. 20세기 초에는 모든 급성 질환 중 가장 흔하고 치사율이 높았는데, 1941년 처음 페니실린을 사람에게 사용한 이후 수많은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상당부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렴은 아직도 흔하고 치사율도 높은 질환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폐렴은 남자의 경우 8.2% (13위), 여자의 경우 5.4%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렴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폐렴은 폐의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병원체의 종류와 염증의 범위에 따라 경과가 다릅니다. 염증의 범

**폐렴의 주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호흡곤란,  
흉통, 전신권태,  
식욕부진, 두통이  
나타나며 누혈고  
탁한 가래가 나오고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발병장소에 따라 기관지폐렴, 간질성폐렴, 대엽성폐렴 등으로 나뉘고,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세균성폐렴, 바이러스성폐렴 등으로 분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균이 체내에 침입해도 이겨낼 수 있으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폐렴에 잘 걸리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호흡곤란, 흉통, 전신권태, 식욕부진, 두통이 나타나며 누르고 탁한 가래가 나오고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해지면 폐기능의 저하로 호흡이 곤란해지며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악화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인과 예방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렴은 폐의 염증으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또는 진균감염이 원인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라이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등이 원인균입니다. 세균성 폐렴은 대부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의 감염으로 생기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후 잘 생기는, 겨울에 흔한 폐렴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열, 떨림, 근육통, 두통, 기침, 숨이 참,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치료는 증세를 완화하고 신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데 그 목표를 둡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은 겨울에 예상되는 호흡성 인플루엔자의 독특한 균주에 대해서 보호하는 1년간 유효한 독감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고열과 떨림, 객담을 수반한 기침을 유발하는데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 숨이 가쁘며 가슴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슴의 통증은 숨을 들이쉬거나 빨리 숨쉴때 탈진상태와 입술이나 손가락 등이 푸른빛을 둘 때 더욱 심해지는데 이러한 종류의 폐렴은 항생제, 기침약과 많은 양의 음료로 객담을 엷게 하는 등의 처치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구균성 폐렴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 받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데 이 백신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면역이 결핍되거나 취장이 없는 환자 또는 겸상적혈구 빈혈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 증상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열, 기침과 흉통, 호흡곤란, 녹색의 농성 가래 등을 나타내게 되는데 폐렴의 증상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은 열, 마른기침이나 가래기침, 숨찬 것, 심장이 빨리 뛰는 것, 흉통 또는 복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 푸른 입술이나 푸른 손톱이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기관지폐렴에 걸리면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등 심한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폐렴을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관지의 일부가 확장되어 넓어지는 기관지 확장증이 병발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반복되는 폐렴 등에 생기며 보통 기침과 많은 양의 가래를 분비하는 것이 특징이고 심한 경우에는 각혈과 호흡곤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폐렴은 초기에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진단

폐렴의 진단은 이학적인 소견과 함께 반드시 X-선 사진촬영이 필요합니다. 청진을 포함한 이학적인 관찰로 환자의 증상을 진찰하고 X-선 사진촬영으로 병변의 범위와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혈액 및 분비물 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규명하여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게 됩니다.

## 치료

폐렴의 대증요법으로는 첫째,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해야하며 둘째,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고(온도 20도, 습도 60퍼센트 정도) 셋째, 호흡기계의 공통 대증요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폐렴의 약물 치료는 원인균에 따르는데 세균성 폐렴이 경우에는 원인균과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인 경우에는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고열을 동반하거나 기침이 심하면 해열제와 진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렴이 가벼운 경우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기침약을 복용하고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된 약물(세균감염의 경우에 항생제와 같은)과 함께 음료를 마심으로써 집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폐렴을 치료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좀더 위중한 경우는 입원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소가 공급될 수 있고 정맥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음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즉, 나이가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당뇨, 만성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만성 간질환, 1년이내 입원한 병력, 의식 변화, 비장 절제 병력, 만성 알콜 중독, 영양실조 등이 있습니다. 진찰 소견상 호흡수 분당 30회 이상, 이완기 혈압 60이하, 수축기 혈압 90이하, 38.3°C이상의 발열, 폐외 장기 패혈성 질환 병발, 의식 저하가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폐렴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병변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박테리아성 폐렴환자는 치료 시작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놀라운 증상의 완화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폐렴에 있어 7일에서 14일 정도의 항생제 치료법이 요구되는데, 적합한 치료와 휴식을 한다고 해도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4~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성균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치료효과가 좋았던 페니실린에 대해 내성을 지닌 폐렴구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폐렴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의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높으며(60~70%), 그것도 고도내성을 지닌 균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성균의 출현은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 때문이므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은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생제 치료 이외에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가슴기를 사용하며 (가슴기내에 약물을 넣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함), 가슴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열찜질을 해 주고, 발열, 통증, 호흡 곤란이 최소한 48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자리에 누워 휴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 후 6주 정도까지는 피로와 쇠약증상을 보이므로 빨리 회복되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발열과 통증 및 호흡이 짧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누워 휴식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영양식품과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매 시간마다 1잔의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기침할 때 폐분비물이 쉽게 배출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